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해석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40장 '성경의 해석'(본문 끝에 제41장이 이어지므로 40장으로 봄), 435–44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범위를 정합니다. 해석은 사본을 베끼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모든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대 철학이 넓혀 놓은 거대한 '해석학' 논의는 다루지 않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기초 문제만 다룹니다. 이어서 “의미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묻는 까닭은 성경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쓸 능력이 모자라서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곧 '적용'이라고 그는 제안합니다. 요한복음 1:1을 예로 들어 의미에 세 층(번역, 신학적 설명, 삶의 방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이 관점이 신약의 구약 인용 문제를 푸는 데도 쓸모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옛날 책을 어떻게 이해하나”라는 오늘의 질문에 다섯 개의 다리로 답합니다. 공통의 인간성, 교회의 역사, 교사들, 성경 자신, 그리고 성령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석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 절별 정리

📜 1. 해석은 모든 단계에 있다 — 이 장이 다루는 범위

프레임은 성경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해하는 일이 우리 몫이고, 이해하려면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석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앙고백서, 신학, 가르침, 번역이 다 그렇고, 사본을 베끼는 일에서도 일어납니다. 필사자의 실수 가운데 많은 수가 잘못된 해석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관한

넓혔습니다. 몇몇은 철학 자체, 나아가 인간의 모든 앎을 '해석학'과 같은 것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프레임은 그런 높은 차원의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그는 해석학을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오래된 보통의 뜻으로 좁히고, 독자를 바른 길에 세우는 기초 안내만 하겠다고 합니다. 더 깊은 논의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포이트레스의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God-Centered Biblical Interpretation, 1999)을 권합니다.

1. 해석은 사본·번역·신학·설교 전 단계에 있다
2. 필사 오류도 잘못된 해석에서 생기곤 한다
3. 현대 철학은 해석학을 앎 전체로 넓혔다
4. 프레임은 '성경 본문 이해'로 범위를 좁힌다
5. 깊은 논의는 포이트레스에게 넘긴다

> —
>
> 이 절에서 저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음

📜 2. 왜 해석이 필요한가 — 모자란 쪽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해석은 흔히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미를 번역처럼, 곧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일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로 충분하지 않다면 왜 바꿔 말해야 할까요? 프레임은 이 질문이 37장에서 던진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답도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1은 무슨 뜻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나” 같은 물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은 모두 '적용'의 물음입니다. 신학이 성경의 적용이라면, 가르침과 설교도 같은 일입니다. 다만 '신학'은 학문 분야를, '가르침'은 교회 사역을 가리킬 때가 많아서 강조점과 다루는 질문의 종류가 조금 다를

1. 의미를 묻는 건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2. 부족한 것은 말씀을 쓰는 우리의 능력이다
3. 표현하는 능력과 결정에 잇는 능력이 모자라다
4. 그래서 신학은 성경의 적용이다(37장)
5. 신학·가르침·설교는 본질상 같은 일이다

> **요한복음 1:1**
> 사람들이 실제로 던지는 해석 질문의 예. 다음 절의 본격적 사례로 이어짐
>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불충분함은 우리 안에 있다.”

📜 3. 해석은 적용이다 — 요한복음 1:1로 본 의미의 세 층

프레임은 해석이 곧 적용이라고 제안합니다. 한 구절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사실 찾는 것은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1로 이를 보여 줍니다. 헬라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의 뜻을 물으면 교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번역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문이 곧 '의미'라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프랑스어 화자에게는 프랑스어 문장이, 다른 모든 언어에도 각자의 문장이 '의미'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번역을 듣고도 여전히 모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있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말로도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프레임은 각주에서 헬라어로 어려운 표현은 영어로도 똑같이 어렵더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층인 신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초'는 창세기 1:1의 처음, 곧 창조이고, '말씀'은 요한복음 1:14가 밝히듯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창조 때 이미 계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죠?”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층으로 갑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유대인이 천지창조 때 이미 계셨다면 아주 특별한 분이 틀림없다. 우리는 힘을 다해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각주에서는 포이트레스가 의미를 원 의미(sense)·적용(application)·관계적 의미(import)의 세 측면으로 나누고, 이 셋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그중 가장 실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적용'을 골라 단순화했다고 밝힙니다.

1. 의미를 찾는 것은 곧 적용을 찾는 것이다
2. 번역문 하나를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
3. 1층 번역, 2층 신학적 설명, 3층 삶의 방향
4. 뜻을 묻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고백
5. 포이트레스의 세 측면을 '적용'으로 단순화

> **요한복음 1:1**
> 의미의 세 층을 보여 주는 중심 사례
>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창세기 1:1**
> 요한복음 1:1의 '태초'가 창조의 시작임을 설명하는 2층(신학적 설명) 근거
>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요한복음 1:14**
>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2층 근거
>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해석-해석학은 또한 적용이라고 제안한다.”

프레임은 28장에서 이른바 '성경 문제들'을 다룰 때 이미 이 관점을 썼다고 상기시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약이 구약을 '부적절하게' 인용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목적을 더 넓게 보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신약의 구약 인용이 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닮았음을 보여 주려고(이야기 병행), 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 겹침을 보여 주려고(언어 병행)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용을 구약 본문의 '적용'으로 보면 신약의 구약 사용이 훨씬 잘 이해된다는 것이 프레임의 주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구절 예시 없이 원리만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1. 비판: 신약이 구약을 엉뚱하게 인용한다
2. 답: 인용 목적이 예언 성취만은 아니다
3. 이야기 병행·언어 병행도 인용의 목적
4. 인용을 '적용'으로 보면 잘 풀린다
5. 자세한 논의는 28장

> —
>
> 이 장에서는 예시 구절 없음(28장에서 다룸)

📜 5. 먼 옛날 책을 어떻게 이해하나 — 첫째에서 셋째 다리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해석 질문은 “우리 시대·문화와 멀리 떨어진 시대·문화에서 나온 책을 어떻게 이해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어려운 일 같습니다. 프레임은 다섯 가지로 답하는데, 앞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문화는 서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대인과 같은 인간성을 나누고 있고, 언어와 문화 사이에도 이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닮은 점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옛 신자와 오늘 신자 사이에서는 그 닮음이 훨씬 큽니다. 둘째,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교회가 문화의 간격을 줄여 줍니다. 모세 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상황에 적용해 왔고, 우리도 그 해석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텅 빈 간극이 아닙니다. 성경 시대부터 우리

언어와 문화에 밝은 교사들을 주셨습니다(35장). 그들도 틀릴 수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를 돕습니다.

1. 가장 흔한 질문: 시대·문화의 거리
2. ① 공통의 인간성, 섭리 안에서 열린 문화
3. ② 이어져 온 교회, 간극은 믿음의 가족으로 참
4. ③ 고대 언어·문화에 밝은 교사들
5. 교사들은 틀릴 수 있지만 큰 도움이 된다

> —
>
> 이 절에서 저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음

📜 6. 넷째 다리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안내자는 성경 자신입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는(불오한) 안내자입니다.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기준은 성경 자신이다. 어떤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그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이 의심스러우면,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입니다.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약이 구약을 전제하고 구약이 신약을 내다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세계관, 같은 상징 구조, 같은 윤리, 같은 역사, 같은 구원의 복음으로 엮여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프레임은 그 근거를 영감에서 찾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인간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하셨으므로 성경은 서로 일관되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서로를 비춰 줍니다. 결국 문화적 차이가 만드는 거리보다 성경의 통일성이 만드는 힘이 더 큽니다(24장 참고).

각주에서 프레임은 신앙고백서의 괄호 문구, 곧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가 중세 해석자들의 '사중적 의미'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중적 의미란 한 구절에 문자적·풍유적·도덕적·천상적 의미가 함께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 해석자들은 [illegible]

본문에서 윤리적 적용을 끌어내거나(고린도전서 10:6-12), 겉보기에 상관없는 일에서 닮은 점을 보이거나(갈라디아서 4:21-31의 바울의 풍유), 미래를 향한 궤적을 그리는 일(모형론과 예언)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십계명을 아주 폭넓게 풀이한 것을 보면, 신앙고백서 작성자들도 성경에서 매우 넓은 범위의 의미를 찾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뜻은 하나”라는 말이 “의미가 단순하고 얕다”는 뜻은 아닙니다(아래 '작가에게'의 번역 문제 참고).

1.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
2. 어려운 구절은 더 분명한 구절로 푼다(신앙고백서 1.9)
3. 영감 덕분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4. 통일성의 힘이 문화 차이보다 크다
5. '뜻은 하나'는 중세 사중 의미를 거부한 말

> **고린도전서 10:6-12**
> 신약이 구약 사건에서 윤리적 적용을 끌어낸 예. 중세 해석이 다 틀리지는 않았다는 근거(각주)
>
>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 그들 가운데 어떤
>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 말자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 **갈라디아서 4:21-31**
> 바울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풍유로 쓴 예. 겉보기에 무관한 것 사이의 닮음을 보이는 해석도 쓸모 있다는 근거(각주)
>
>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

베드로후서 1:20-21, 사도행전 15:15-16

(정리자 보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에 붙은 증거 구절. 프레임은 이 장에서 인용하지 않음

베드로후서 1:20-21 [20]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행전 15:15-16 [15]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 7. 다섯째 다리 —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결론

프레임은 이 책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알아보는 길은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1장).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자신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책들의 목록을 알아본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자기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셔서(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해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적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명료성은 29장 참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이

삶의 기초, 곧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마지막 표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빗댄 것입니다.

1. 말씀을 알아보는 최종 길은 초자연적이다
2. 아브라함, 정경 인정 모두 하나님이 확신 주심
3.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해석하게 하신다(42장)
4.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격적 소통을 못 막는다
5. 다 알지 못해도 위로가 될 만큼은 안다

> —
> 이 절에서 저자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음(아브라함 이야기는 1장 참조로만 언급)

> **고린도전서 2:12-14**
> (정리자 보충, 저자 인용 아님)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조명 교리의 대표 구절. 42장 주제와 연결
>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한다.”

⚖️ **오해와 반론** ⌄

해석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일. 프레임은 이를 '적용'과 같은 일로 본다.

해석학
해석의 원리와 방법을 따지는 학문.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앎 전체를 다루는 말로 넓어졌다.

적용
말씀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고 삶과 결정에 연결하는 일. 프레임에게는 번역과 신학적 설명까지 포함하는 넓은 말이다.

원 의미·적용·관계적 의미
포이트레스가 나눈 의미의 세 측면. 원 의미는 여러 문맥에서도 그대로인 뜻, 적용은 말이나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 관계적 의미는 한 표현이 다른 표현들(문맥)과 맺는 관계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어려운 구절은 더 분명한 다른 구절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종교개혁의 원리. 본문에는 라틴어로 'Scriptura ipsius interpres'라고 적혀 있다(흔히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로 알려짐).

불오(不誤)
틀릴 수 없다는 뜻. 성경은 불오한 안내자이지만, 교사나 우리의 해석은 틀릴 수 있다.

사중적 의미
한 구절에 문자적·풍유적·도덕적·천상적(종말적) 네 뜻이 있다고 본 중세의 해석법.

풍유(알레고리)
이야기 속 인물이나 사건을 다른 영적 실재의 상징으로 읽는 방식.

모형론
구약의 인물·사건·제도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라고 읽는 방식.

성령께서 이미 주어진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일.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해석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단계에 있고,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 때문이다.
- 의미를 찾는 것은 적용을 찾는 것이다. 의미에는 번역, 신학적 설명, 삶의 방향이라는 세 층이 있다.
- 시대·문화의 거리는 공통의 인간성, 교회의 역사, 교사, 성경 자신, 성령이라는 다섯 다리로 건넌다.
- 그중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와 성령의 조명이 가장 결정적이다.
- 해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격적 소통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위로가 될 만큼 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0편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